

# 치킨가격의 진실?



## 1. 왜 문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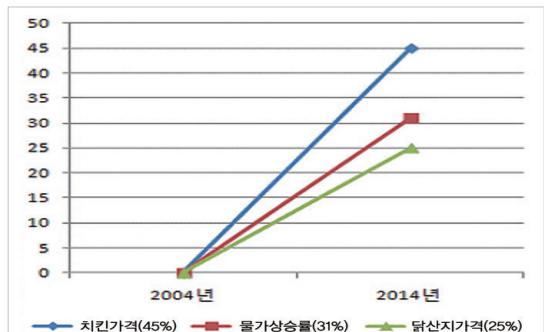
지난 7월 본회(회장 오세을)는 치킨프라이드 업계를 상대로 치킨가격을 내려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당시 생닭 가격은 농장 출하가가 kg당 1,000원선에 머물면서 최악의 불황을 맞이하고 있었고 치킨업체들의 가격은 마리당 2만 원대를 기록하면서 생닭가격에 비해 치킨가격이 높다는 분위기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아닌 닭을 사육하는 농가들이 치킨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에 언론매체들은 더욱 관심을 기울였다. 본회는 10년간의 생닭가격 변화율, 치킨가격 변화율, 물가지수 변화율을 비교한 결과(도표1) 치킨가격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판매되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실제적으로 생닭가격은 10년전에 비해 25% 오른 반면, 치킨가격(후라이드)은 45%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가격형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치킨업체에서 판매되는 38개 치킨

가격을 조사, 발표한 바에 의하면 가격이 8,500 원부터 21,000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가격이 16,600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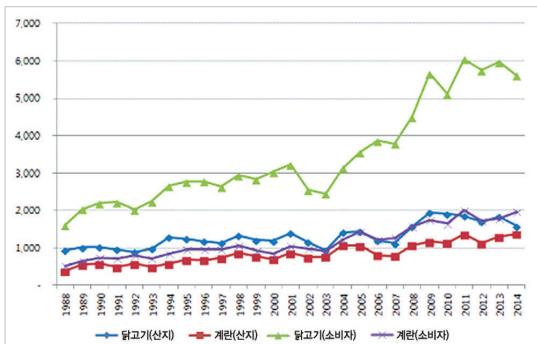
## 2. 치킨가격 형성과정

본회에서는 치킨 가격의 원가공개를 요구하고



〈도표1〉 10년간 물가상승 대비 치킨가격과 닭산지가격 상승비율(%)

구분	2004년	2014년	비율
치킨(후라이드)가격(마리)	8,500	21,000	45%
산닭가격(kg)	1,000	1,561	56%
물가지수(%)	83	109	31%



〈도표2〉 계란과 닭고기 산지가격과 소비자 가격 비교

나섰고 언론 매체들은 나름대로의 분석을 통해 닭고기 유통 실태를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전체적인 유통 흐름을 보면 농장에서 도계장에 직거래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일반 유통을 통해 도계장에 들어가 도계, 염지를 거쳐 프랜차이즈 본사와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들은 최종 매장에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언론사의 분석에 의하면 농장에서 마리당 1,500원하는 닭은 유통업자 및 도계장(도계, 염지 등)을 거치면서 치킨프랜차이즈 본사에 3,500~4,000원에 계약이나 입찰을 통해 넘겨지고 이 닭들이 가맹점에는 마리당 5,500원을 받고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가맹점에 도착한 닭들은 조리 과정을 거쳐 11,000~15,000원 선에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1,200원~1,500원 상당의 기름, 파우더, 양념 등 조리비용, 포장비용(350원), 무(280원), 콜라(캔당 400원)를 순전히 본사로부터 사들이고, 배달은 거리에 따라 2,500~4,500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신제품 출시, 전단지 배포, 매장 임대료, 본사 광고료 등을 감안하면 이익을 내기도 힘들다는 것이 치킨업계의 반응이다.

농협에서 발표한 계란과 닭고기의 생산자 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흐름을 보더라도 닭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벌어진 것을 알 수 있다(표2). 이러한 현상은 2003년 AI가 발생한 이후부터 크게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치킨업계 경기가 흔들릴 때마다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면서 내릴줄을 몰랐다. 이러한 현상은 치킨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하면서 가격담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 3. 원가공개 이루어져야

여러 경로를 통해 집계한 생계에서 도계장까지의 최종 공급가격을 보면, kg당 1,000원짜리 닭이 농가에서 도계장으로 이동하면서도 가공비를 포함하면 약 3,1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호 기준으로 도계육 가격은 (생계가격(1,000원\*1.5)+운반비(90원)÷수율(65%)+도계관련 제비용(300원))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는 kg당 약 2,700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가공비(400원-염지액+포장+박스+인건비)를 포함하면 최종 공급원 가가 산출되는데 약 3,100원 정도의 원가가 발생한다.

이것이 유통비를 포함해 직접 시장으로 나갈 경우 3,500원에서 4,000원정도에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치킨프랜차이즈 업체에게는 생계가격을 고정가격으로 하여 일부는 상/하한선을 두고 시세반영을 하거나 입찰경쟁을 통해서 최저가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 가격이 3,500~4,000원 선이며 가맹점에는 5,500원 정도에 납품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국 가맹점에서는 본사에서 공급하는 다양한 조건들을 충족하고 이익마진을 붙여 1만원에서 2만원대까지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 4. 소비자 단체도 치킨가격 문제제기

이와 관련해 프랜차이즈 치킨가격 적정성에 대해 소비자단체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둘가감시센터는 프랜차이즈 치킨가격의 적정성 분석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산지 대닭 가격은 금년도 상반기

1,627원으로 2010년 대비 14.3%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치킨가격은 2만원에 육박하면서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치킨 브랜드 마진이 일반 제조업의 1.9~7.2배 보다 높은 1.1%~32.2%까지 다양하면서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공급·유통마진이 50%에 달해 가맹점과 최종 소비자들에게 이 중부담을 주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즉, 50%의 마진이 적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광고비용도 모회사의 경우 1년에 110억원의 광고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치킨 본사는 합리적인 경영과 가격 인하를 통해 양계농가, 가맹점, 소비자와 상생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5. 생산자, 소비자, 가맹점 원원해야

이와 관련하여 지난 13일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프랜차이즈 치킨가격 합리화 방안 간담회가 비공개로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연구한 치킨가격 적정성에 대한 설명과 각 업계로부터 의견을 교환하였다. 치킨프라이드 업체에서는 전체 닭고기 시장(집단급식소 35%, 대형마트 26%, 일반음식점 28%, 2차가공 10%)중 일반음식점에 해당하



▲ 지난 13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치킨가격 합리화방안 간담회(소비자단체, 생산자, 치킨와식업체 등 모인 가운데 진행)

는 28%를 취급하는 치킨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못매를 맞는 것은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 연구비, 양념, 소스, 물류, 로얄티, 광고, 배달비, 임대료 등 제 비용을 감안하면 닭고기 가격이 결코 비싼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치킨 브랜드 가치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며 오히려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경쟁력이 낮은 업체들이 매장을 통해 오히려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치킨을 판매하면서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생산자 단체에서는 투명한 원가공개를 통해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어 국민식품으로 소비를 창출할 수 있기를 요구하였고 소비자 단체에서는 생산자, 가맹점,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기회를 통해 만들어갈 것을 주문하였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닭고기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늘어갈 것이며 국민들의 주식으로 자리잡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본회를 시작으로 이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이 되었지만 아직 서로간의 입장차이가 커 치킨가격 하락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크지만 같이 만나 협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의의가 크며, 향후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어 닭고기 및 치킨유통업계에 긍정적인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한다. **양계**